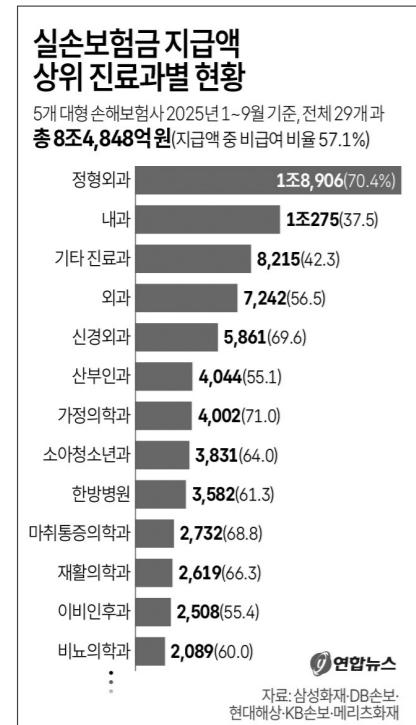


5대 손보사 실손보험금 8.5조…도수치료 등 정형외과 1위



5대 대형 손해보험사가 올해 들어 실손보험금을 8조5000억원 지급했고 이중 정형외과 관련이 도수치료 등으로 가장 많았다.

15일 5개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에 따르면 올해 1~9월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8조4848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1% 증가했다.

실손보험금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7.6% 늘었는데 올해는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진료과 별로는 정형외과가 1조8906억 원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하며 29개 과 중 압도적 1위였다.

지급액 중 비급여 비율이 70.4%로, 평균치(57.1%)를 훨씬 웃돌았다.

비급여 비율이 높은 것은 도수치료와

9월 말 13% ↑…비급여주사제 등 손해율 121%

5세대 실손 도입 앞둬…업계 “비급여 관리해야”

체외증격파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가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손보험금 지급액 상위권에는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진료 외에도 비급여 비율이 높은 과들이 다수 포함됐다.

실손보험금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7.6% 늘었는데 올해는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진료과 별로는 정형외과가 1조8906억 원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하며 29개 과 중 압도적 1위였다.

지급액 중 비급여 비율이 70.4%로, 평균치(57.1%)를 훨씬 웃돌았다.

비급여 비율이 높은 것은 도수치료와

대비 20.9% 늘었다. 독감·감기 등 치료를 위해 비급여 주사제 등이 많이 쓰인 것으로 추정됐다.

비뇨의학과(2089억원)의 경우 작년보다 37.6% 급증했는데, 이는 전립선 결찰술과 같은 고가의 신의료기술 이용으로 보험금 청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비급여 물리치료나 주사제 등을 과잉 이용하는 것은 실손보험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손보자 지급보험금 12조9000억원 중 물리치료(도수·체외증격파·증식치료)가 2조

2903억원, 비급여 주사제는 6525억원이었다. 전체 지급보험금의 23% 수준이다.

한방병원 실손보험금 지급액도 3582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6.9% 늘었다.

한방첩약 등 한방 의료 항목의 급여화와

한방 협진 등 영향으로 보인다.

실손보험금 청구가 늘면서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손보사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20.7%로 작년 말보다 3.7%p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통상 손해율 100%를 손이분기점으로 본다.

손해율 악화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을 증정·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을 차등화하고,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 자기 부담률을

50%까지 높이는 내용의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앞두고 있다.

또 비급여 과정 진료 논란이 지속되자

최근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 가격 관리와 규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에도 복지부가 고시한 표준명칭·코드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소비자에게 비급여 관련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지나치게 높아 비급여 관리와 함께 실손보험료 정상화는 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3호 AI직원 ‘AI 여비몬’ 채용

관외출장 여비 정산 자동화로 업무 정확성 높여
‘AI 당지기’·‘AI 대변인’ 이어 행정 전반 AI 확대

광주시가 ‘AI 당지기’, ‘AI 대변인’에 이어 3호 인공지능(AI) 직원인 ‘AI 여비몬’을 선보이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행정 전반에 도입하는 업무 혁신에 나섰다.

광주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관외출장 여비 정산 시스템인 ‘AI 여비몬’을 도입했다.

‘AI 여비몬’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다.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주제별로 예상되는 예산을 예상하는 등

자동화 기능 구현 전반을 직접 설계·개발했다.

새 시스템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Opinet)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연동해 출장일 기준 유가를 자동으로 불러오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연료비를 산출한다. 또 복잡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알고리즘으로 구현해 수기 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나 오류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출장자가 휴대전화로 영수증을 활용해 올리면 출장 내역과 영수증을 자동으로 연결해 전자 증빙이 이뤄져 ‘증이

없는 행정’을 구현했다. 정산이 완료되면 정산 내역과 증빙 자료가 통합된 여비 정산 결과보고서가 전자문서(PDF) 형태로 즉시 생성돼 별도의 문서작업 없이 결재까지 가능한 ‘원스톱(One-stop)’ 처리 환경을 갖췄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8월 특·광역시 최초로 당직제를 전면 폐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당직민원 응대 시스템인 ‘AI 당지기’를 도입해 전체 당직 민원의 84%를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행정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또 보도자료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생성형 AI 첫봇 ‘AI 대변인’을 자체 개발해 직원들의 문서 작성 부담을 줄이는 등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

박해미 시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AI 당지기”, ‘AI 대변인’, ‘AI 여비몬’ 등 인공지능(AI) 직원 도입은 단순한 업무 편의성을 넘어 공무원이 절감한 시간과 역량을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로 환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활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한국농어촌공사는 15일 정보보안 경영시스템(ISO/IEC27001)과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ISO/IEC277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농어촌공사, 해킹 방어 역량 입증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2종 획득

당선무효 전 회장 출마에 광주건설협회 선거 ‘시끌’

김명기 전 회장 후보 등록 ‘3파전’ 논란

제도 허술 재출마 제한 없어…23일 투표

전 회장의 당선무효로 치러지는 대안건 설협회 광주시회 제13대 회장 재선거를 둘러싸고 지역 건설업계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에서 금품제공 행위가 인정돼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김명기 전 회장이 이번 재선거에 다시 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제도적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15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안건 설협회 광주시회 제13대 회장 재선거 후보로 김명기 국제건설 대표, 조성래 디알씨총원건설 대표(전 협회 부회장), 황인일 뉴삼원종합건설 대표(현 수석부회장) 등 3명이 등록했다.

후보자들은 오는 22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한 뒤 선거운동에 돌입하며 23일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재선거는 지난 2023년 4월 치러진 제13대 회장 선거의 후속 절차다. 당시 김명기 전 회장은 근소한 표 차로 조성래 대표를 제치고 당선됐으나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제공 행위를 둘러싼 소송 끝에 1·2심 모두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김 전 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후 이를 포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협회 정관에 따라 확인일 수석부회장이 현자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며 이번 재선거를 통해 잔여 임기를

채울 새 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논란의 핵심은 당선무효 사유가 명확화에도 불구하고 김 전 회장이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협회 정관에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후보자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협회 선거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품제공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전직 회장의 재출마라는 이례적 상황 속에서 이번 선거가 협회의 신뢰 회복 계기가 될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남 휘발유 가격 7주 연속 올랐다

1751.86원…최대 24.34원 상승

전국 기름값 7주만에 하락 전환

전남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7주 연속 상승했다. 광주는 2주 연속 하락을 보이며 지역별 희비가 엇갈렸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7~11일) 전남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751.86원이다.

10월 넷째 주(19~23일) 1766.73원을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최대 24.34원을 올렸다.

경유도 9월 셋째 주(14~18일) 1536.29원을 기록한 후 1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12월 둘째 주 광주 휘발유 판매가격은 1731.95원으로, 11월 넷째 주(23~27일) 1732.70원을 기록한 이후 2주 연속 내린 1722원이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4달러 하락한 78.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1달러 내린 84.3달러로 집계됐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가격은 7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12월 둘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7원 내린 1746.0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4원 하락한 1660.5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라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합의 진전 기대가 지속되면서 하락했다.

작년 3만8000명 퇴직연금 중도 인출해 주택구입

국가데이터처 퇴직연금통계

역대 최대 1조8000억 규모

7000명으로 전년(6만4000명)보다 4.3% 증가했다. 인출금액은 3조원으로 12.1% 늘었다.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늘었다.

중도인출 사유(인원 기준)는 주택구입이 5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주거임차(25.5%), 회생절차(13.1%) 순이었다. 20대 이하는 주거임차, 나머지 연령대는 주택구입 목적의 중도인출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 인원은 3만8000명, 금액은 1조8000억원이었다. 인원과 금액 모두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지난해 도입 대상 사업장(164만6000개) 중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43만5000개로 전년(42만9000개)보다 1.4% 늘었다. 도입률은 26.5%로 전년과 거의 같았다.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6만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가 어려워지자, 노후 자금까지 동원해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국가데이터처 퇴직연금통계

역대 최대 1조8000억 규모

7000